

일지역 중년기 성인의 심뇌혈관질환에 대한 지식, 태도 및 자기효능감에 관한 연구

박연희^{1*}, 장영미¹
¹대전과학기술대학교 간호학부 교수

The Study on Knowledge, Attitude and Self-efficacy of the Cardiocerebrovascular Disease among the Middle-aged

YeonHee Park^{1*}, YoungMi Jang¹
¹Professor, Dept. of Nursing, Daejeon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요약 본 연구는 일지역 중년기 성인의 심뇌혈관질환에 대한 지식, 예방에 대한 태도 및 자기효능감을 파악하고 그 관계를 확인하여 중년기 성인의 심뇌혈관질환 예방을 위한 건강증진 프로그램의 중재 전략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시도되었다. 연구대상자는 S시에 거주하는 40대, 50대의 중년기 성인 198명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이용해 조사하였다. 자료 분석은 기술통계와 t-test, ANOVA,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대상자의 나이, 교육정도, 월수입에 따라 지식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교육정도와 월수입에 따라 태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성별에 따라 자기효능감이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관관계 분석에서 심뇌혈관질환에 대한 지식과 예방에 대한 태도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45, p<.001$). 즉 심뇌혈관질환에 대한 지식수준이 높을수록 질환의 예방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심뇌혈관질환의 예방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형성할 수 있는 교육 및 중재프로그램의 개발과, 중년기 남성의 자기효능감을 높일 수 있는 동기강화 프로그램이 개발이 필요하다.

키워드 : 지식, 태도, 자기효능감, 심뇌혈관질환, 중년

Abstract This study aimed to provide basic data on health promotion programs to prevent cardiocerebrovascular Disease by identifying knowledge, attitude and self-efficacy. Data were collected from 198 middle-aged adults in S-city. The data analysis was analyzed with technical statistics and t-test, ANOVA,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knowledge depending on the age, education level, monthly income and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attitude depending on the education level and monthly income. There were also significant differences in self-efficacy between gender. The correlation analysis also showed a significant correlation between knowledge of cardiovascular disease and attitudes toward prevention($t=45, p<.001$). In other words, the higher your knowledge of cardiovascular disease, the more positive you are about preventing it.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develop education and mediation programs that can form a positive attitude toward preventing cardiocerebrovascular disease and to develop programs that enhance the self-efficacy of middle-aged men.

Key Words : Knowledge, Attitude, Self Efficacy, Cardiocerebrovascular Disease, Middle Aged

1. 서론

2017년 사망원인통계연보에 의하면 심장 질환, 뇌혈관

*Corresponding Author : 박연희(yhpark@dst.ac.kr)

Received September 21, 2018

Revised October 29, 2018

Accepted December 14, 2018

Published December 31, 2018

질환이 우리나라 3대 사망 원인으로 꼽히며 전체 사인의 46.4%에 해당할 정도로 유병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성별에 관계없이 40대 이상 성인의 5대 사망 원인에 포함되며, 연령이 증가할수록 유병율이 높아져 우리나라 남, 녀 성인의 심뇌혈관질환에 대한 예방활동 및 심뇌혈관질환 위험인자 관리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1,2].

심뇌혈관질환은 협심증, 심근경색증 등과 같은 심장질환, 뇌졸중 등의 뇌혈관질환을 칭하며 연령이 증가함에 따른 심뇌혈관질환의 사망률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1]. 심뇌혈관질환의 위험인자 및 선행질환으로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비만, 흡연, 스트레스, 운동부족 등이 있으며, 심뇌혈관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들의 생활습관개선이 필요하다[3]. 특히 심뇌혈관질환의 주요 원인질환인 고혈압, 당뇨, 이상지질혈증은 나쁜 생활습관에 많은 영향을 받으므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며, 건강한 생활습관 유지를 위해 개인별 수준에 맞는 교육을 할 필요가 있다[4].

대부분 중년의 남성은 직장에서의 과도한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 잦은 회식, 운동 부족 등의 이유로 건강한 생활습관 관리가 매우 어렵다. 선행 연구결과에서도 중년 남성의 45.1%가 흡연을 하고, 4.7%만이 매일 운동을 한다고 응답하여 중년남성의 심혈관질환의 위험인자에 노출될 위험이 높음을 알 수 있다[5].

과거 심뇌혈관질환은 남성의 질환이라는 인식이 강하였으나 2017년 여성의 심장 질환(61.8%) 및 뇌혈관질환(46.1%) 사망률이 남성의 심장 질환(58.6%), 뇌혈관질환(42.7%) 보다 높아 남성 뿐 아니라 중년 여성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의 중요성도 강조되고 있다[1]. 중년 여성은 폐경을 경험하면서 대사증후군의 유병율을 높이는 주요 인자로 작용하고, 폐경과 관련된 호르몬의 변화는 체질량지수, 고콜레스테롤, 중성지방, 혈압이 유의하게 증가하며 이러한 대사증후군의 증가는 심뇌혈관질환의 이환율을 증가시킨다[6]. 또한 여성은 전형적인 흉통이 아닌 위관장애와 같은 비전형적 증상 발현으로 나타나고, 증상에 대한 지식 부족으로 급성 증상을 인지하지 못하여 병원을 늦게 찾음으로 조기에 적극적인 치료를 하지 못한다고 하여[7] 중년 여성들의 심뇌혈관질환 예방을 위한 인식 개선 및 생활습관 개선이 절실히 요구된다.

심뇌혈관질환은 질환이 발병하기 전에 위험요인들을 잘 관리하고 제거하면, 어느 정도 예방이 가능하므로, 노년까지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중년 성인의 건강증진을 위한 생활습관 개선이 필요하다[8]. 인생주기에 따라 예측되어지는 건강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질환 및 건강에 대한 지식이라고 할 수 있다[5]. 지식은 태도를 결정하면서 건강행위로 이행되어지므로 질병에 대한 올바른 지식은 적절한 동기유발, 태도를 형성하고 이는 실행으로 이어진다[9].

한편, 개인의 건강행위증진에는 자기효능감이 중요한 영향 요인으로 보고되고 있는데, 자기효능감은 특수 상황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 필요한 행위를 수행하는 개인이 지각한 자신감을 의미한다[4,10]. 그러므로 지속적으로 생활습관을 개선하고 건강관리를 수행해야 하는 중년 성인에게 자기효능감과 같은 사회심리적 요소를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의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중년 남성 근로자의 심뇌혈관질환 인식, 태도, 건강행위실천을 분석한 연구[11], 중년 남성 운전직 근로자의 예방 관련 지식, 건강행위를 분석한 연구[12], 생상직 근로자의 심뇌혈관질환 예방실천행위 영향 요인[5], 폐경 중년 여성의 심뇌혈관질환 지식, 건강행위[12] 등이 있으나 주로 성별에 따른 심뇌혈관질환 인식, 태도 및 건강행위에 대한 연구였다. 이에 본 연구자는 중년기 성인의 심뇌혈관질환에 관한 지식, 예방에 대한 태도, 자기효능감을 확인하고 이들의 관계를 파악하여, 심뇌혈관질환 예방을 위한 질병예방 교육 및 건강증진 프로그램의 중재 전략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중년기 성인의 심뇌혈관질환에 관한 지식, 예방에 대한 태도 및 자기효능감을 확인하고 이들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1) 대상자의 심뇌혈관질환에 관한 지식, 예방에 대한 태도 및 자기효능감 정도를 파악한다.

- 2)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심뇌혈관질환에 관한 지식, 예방에 대한 태도 및 자기효능감의 차이를 파악한다.
- 3) 대상자의 심뇌혈관질환에 관한 지식, 예방에 대한 태도 및 자기효능감의 관계를 파악한다.

3. 연구방법

3.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심뇌혈관질환 위험인자를 가진 중년기 성인의 심뇌혈관질환에 관한 지식, 예방에 대한 태도, 자기효능감을 확인하고 그 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상관관계 연구이다.

3.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의 대상자는 S시에 거주하는 40대, 50대 중년기 성인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본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연구 참여에 동의한 자로 하였다. 표본 수는 G-power 3.1 프로그램을 이용하였으며, 상관관계 분석에 필요한 효과크기 .30, 유의수준 .05, 검정력 .95로 하여 표본수를 계산한 결과 134명이 산출되었다. 탈락율을 고려하여 200부의 설문지를 배부하였으며, 응답이 불충분한 설문지를 제외하고 총 198부를 분석하였다.

3.3 연구도구

3.3.1 심뇌혈관질환에 관한 지식

심뇌혈관질환의 지식은 미국 CDC(질병통제예방센터, Center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에서 2009년 발표한 BRFSS(Behavior Risk Factor Surveillance System Questionnaire)를 국내 질병관리본부와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교수진이 번역하여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수정한 도구를 사용하였다[13,14]. 심혈관질환 지식에 관한 6문항, 뇌혈관질환에 관한 지식 6문항의 총 1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은 5점 척도로 점수의 범위는 12~72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심뇌혈관질환에 대한 지식이 높은 것을 의

미한다. 개발당시 Cronbach's $\alpha=.83$ 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95$ 로 나타났다.

3.3.2 심뇌혈관질환의 예방에 대한 태도

심뇌혈관질환의 예방에 대한 태도 측정도구는 보건복지부와 심뇌혈관질환 관련 8개 학회(대한가정의학회, 대한고혈압학회, 대한뇌신경재활학회, 대한뇌졸중학회, 대한당뇨병학회, 대한비만학회, 대한심장학회, 한국지질동맥경화학회)가 2008년에 발표한 심뇌혈관질환 예방을 위한 건강한 생활습관의 내용인 총 9문항의 도구를 사용하였다[15]. 각 문항은 5점 척도로 점수의 범위는 9-45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심뇌혈관질환 예방에 대한 태도가 좋은 것을 의미한다. 개발당시 Cronbach's $\alpha=.89$ 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90$ 로 나타났다.

3.3.3 심뇌혈관질환의 예방에 대한 자기효능감

심뇌혈관질환의 예방에 대한 자기효능감은 Jun[15]이 관상동맥우회술환자를 대상으로 사용한 도구를 본 연구의 대상자에 맞게 수정·보완한 도구로 측정하였다. 이는 총 15문항으로 심리적 적응능력(3문항), 건강관리(2문항), 식습관(2문항), 운동습관(2문항), 흡연(2문항), 음주(2문항), 스트레스(1문항), 수면(1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전혀 그렇지않다(1점)', '매우 그렇다(5점)'로 평가하고,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효능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June[16]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89$ 이었고 본 연구에서 Cronbach's $\alpha=.94$ 로 나타났다.

3.4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WIN 25.0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로, 대상자의 심뇌혈관질환에 관한 지식, 예방에 대한 태도, 자기효능감 정도는 평균과 표준편차로 분석하며,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심뇌혈관질환 예방에 대한 자기효능감의 차이는 t-test와 ANOVA로 분석하였다. 또한 심뇌혈관질환에 관한 지식, 예방에 대한 태도, 자기효능감의 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로 분석하였다.

4. 연구결과

4.1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는 남성이 78명(3한.4%), 여성이 120명(60.6%)이었고, 평균 연령은 50.11세이었다. 교육수준은 대졸 이상이 133명(67.2%)이었고, 결혼 상태는 기혼이 184명(92.9%)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상자들이 느끼는 주관적인 건강상태는 10점 만점 중에서 평균 5.45점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 과 같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N=198)

Variables	Categories	n	%
Gender	Male	78	39.4
	Female	120	60.6
Age	40-49years	91	46.0
	50-59years	107	54.0
Education status	Elementary school	1	0.5
	Middle school	10	5.1
	High school	54	27.3
	Bachelor's degree	133	67.2
Marital status	Married	184	92.9
	Single	8	4.0
	Separated	1	0.5
	Divorced	3	1.5
	Widowed	2	1.0
Monthly income (10,000won)	<200	26	13.1
	200-299	36	18.2
	300-399	49	24.7
	400-499	45	22.7
	500≤	42	21.2
Subjective health status	M±SD	5.45±1.38	
Smoking	Everyday	15	7.6
	Sometimes	8	4.0
	Nonsmoking	175	88.4
Alcohol	Everyday	13	6.6
	Sometimes	107	54.0
	Nondrinking	78	39.4
Exercise	Everyday	50	25.3
	Sometimes	111	56.1
	Nonexercise	37	18.7
Diagnostic disease	Hypertension	22	11.1
	Diabetes	12	6.1
	Angina pectoris	9	6.9
	Hyperlipidemia	30	15.2

4.2 대상자의 심뇌혈관질환에 관한 지식, 예방에 대한 태도 및 자기효능감

대상자의 심뇌혈관에 대한 지식은 총 12개 항목으로 측정하였고, 평균 42.08±13.12점으로 점수의 범위는 12-60점으로 나타났다. 예방에 대한 태도는 총 9개 항목으로 측정하였고, 평균 41.35±6.10점으로 점수의 범위는 13-45점으로 나타났다. 자기효능감은 총 15개 항목으로 측정하였고, 평균 56.08±13.02점으로 점수의 범위는 15-75점으로 나타났다(<Table 2>).

<Table 2> Descriptive Statistics of Main Variables (N=198)

Variables	M±SD	Min-Max	Reliability
Knowledge	42.08±13.12	12-60	.946
Attitude	41.35± 6.10	13-45	.900
Self efficacy	56.08±13.02	15-75	.942

4.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심뇌혈관질환에 관한 지식, 예방에 대한 태도, 자기효능감의 차이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주요 변수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연구 대상자의 나이(t=2.74 p=.006), 교육정도(t=3.93, p=.009), 월수입(t=9.51, p<.001)에 따라 심뇌혈관질환에 관한 지식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교육정도(t=10.89, p<.001)와 월수입(t=4.62, p=.001)에 따라 예방에 대한 태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성별에 따라 자기효능감(t=-3.08, p=.002)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성별에 따른 차이를 보면, 여성이 남성보다 심뇌혈관질환의 예방에 대한 자기효능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나이에 따른 차이를 보면, 40대 보다는 50대에서 심뇌혈관질환에 관한 지식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월수입이 많을수록 심뇌혈관질환에 관한 지식과 예방에 대한 태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able 3>).

<Table 3> Difference in Knowledge, Attitude, Self-efficacy based on General Characteristics (N=198)

Variables	Categories	Knowledge		Attitude		Self-efficacy	
		M±SD	t or F(p)	M±SD	t or F(p)	M±SD	t or F(p)
Gender	Male	43.12±12.98	.90 (.370)	41.05±6.67	-.55 (.582)	52.62±13.30	-3.08 (.002)
	Female	41.40±13.21		41.54±5.73		58.33±12.37	
Age	40-49years	39.32±13.14	-2.74 (.006)	41.81±5.27	.99 (.324)	55.95±13.13	-.13 (.897)
	50-59years	44.42±12.69		40.95±6.73		56.19±12.98	
Education status	Elementary school	53.00*	3.93 (.009)	44.00*	10.89 ($<.001$)	71.00 *	.59 (.620)
	Middle school	31.40±13.32		31.70±11.42		53.30±18.93	
	High school	39.70±14.41		40.87±6.95		56.33±12.35	
	Bachelor's degree	43.76±12.11		42.25±4.39		56.07±12.84	
Marital status	Married	42.14±13.13	1.24 (.294)	41.43±5.92	1.77 (1.36)	56.02±13.23	.36 (.836)
	Single	39.00±9.23		36.63±9.72		55.50±9.47	
	Separated	39.00*		45.00*		61.00*	
	Divorced	35.67±21.08		45.00±0.00		63.33±10.12	
	Widowed	60.00±0.00		45.00±0.00		50.50±16.26	
Monthly income (10,000won)	<200	30.35±13.35	9.51 ($<.001$)	37.19±10.32	4.62 (.001)	59.46±13.80	.91 (.458)
	200-299	38.47±14.54		41.19±4.35		55.08±11.07	
	300-399	44.12±9.92		41.78±5.58		54.33±14.26	
	400-499	45.24±11.31		41.47±5.94		55.31±12.70	
	500≤	46.64±12.20		43.43±2.83		57.69±12.92	
Disease	Yes	43.46±12.45	1.07 (.285)	41.35±5.38	.01 (.994)	53.88±14.33	-1.72 (.086)
	No	41.35±13.44		41.35±6.47		57.22±12.17	
Treatment	Yes	43.39±12.42	.67 (.492)	42.24±4.23	1.00 (.320)	57.63±12.41	.82 (.414)
	No	41.76±13.29		41.14±6.46		55.71±13.17	

* n=1

4.4 심뇌혈관질환에 대한 지식, 예방에 대한 태도 및 자기효능감의 관계

중년기 성인의 심뇌혈관질환에 대한 지식, 태도 및 자기효능감의 상관관계에서 심뇌혈관질환에 대한 지식과 예방에 대한 태도($r=.451, p<.001$)는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심뇌혈관에 대한 지식이 높을수록, 예방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으로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그 외 변수인 자기효능감과 지식, 자기효능감과 태도는 상관관계가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Table 4>).

<Table 4> Correlation with Main Variables (N=198)

	Knowledge	Attitude	Self-efficacy
Knowledge	1		
Attitude	.451 ($<.001$)	1	
Self efficacy	-.041 (.564)	.132 (.064)	1

5. 결론

본 연구는 중년기 성인을 대상으로 하여 심뇌혈관 질환에 대한 지식, 예방에 대한 태도, 자기효능감을 확인하고 이들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고자 시도되었다.

연구결과 심뇌혈관질환에 대한 지식과 예방에 대한 태도($r=.451, p<.001$)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식과 자기효능감, 태도와 자기효능감은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나이와 교육정도, 월수입이었으며,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교육정도와, 월수입이었다. 그리고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성별로 나타났다.

심뇌혈관질환에 관한 지식과 예방에 대한 태도가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심뇌혈관질환에 대한 지식이 높을수록, 예방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심뇌혈관질환에 대한 지식 정도가 높을수록 예방실천행위가 좋았다고 한 Lee[17]의 연구, 남성 근로자의 심뇌혈관질환 지식과 예방에 대한 태도가 정적인 관계를 보였다고 한 Kong[11] 연구 결과와도 일치한다. Lee[17]는 생활습관을 개선하고 자기 관리를 잘 하는 사람은 건강에 대해 관심이 높기 때문에 심뇌혈관질환에 대한 지식정도가 높았다고 보고하였다. 이를 토대로 중년 성인이 예방적 태도를 높이기 위해 심뇌혈관질환 예방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얻고 실천 가능하도록 적극적인 교육과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련 지식이 건강행위에 영향을 미친다는 Kim과 Hwang[12]의 연구결과와 유사하였고, 관상동맥 질환에 대한 지식이 환자의 행위에 영향을 준다고 한 Kang과 Cho[16]의 연구와도 유사하여 본 연구 결과를 지지하고 있다. 그러나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관련 지식은 높으나 건강행위이행으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결과[17]도 보고되고 있어, 연구 간의 다양한 예측요인 및 반복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 연구 대상자의 심뇌혈관질환에 관한 지식 정도는 42.08점으로 나타났다. 5점 만점으로 환산한 경우 3.51점으로 대상자들의 심뇌혈관질환에 대한 증상의 지식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같은 도구를 사용하여 65세 노인의 심뇌혈관질환 지식정도 점수가 2.59점으로 나타난 것[18]과 건설적

근로자의 심뇌혈관질환 지식정도 점수가 3.10점인 것 [19]보다 높은 점수이다. 그러나 연구 대상자의 연령과 교육정도의 차이에 따라 나타난 결과 일 수 있어, 비교분석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추후 반복적인 연구를 통한 검증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대상자의 예방에 대한 태도는 41.35점으로 나타났다. 5점 만점으로 환산하면 4.59점으로, 이는 같은 도구를 사용하여 생산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연구한 Kim과 Choi[20]의 연구결과와 40대 근로자가 4.27점, 건설직 근로자의 예방에 대한 태도가 4.12점으로 모두 본 연구 결과 보다 낮았다.

이러한 차이는 선행 연구들과 비교하여 대졸 이상의 대상자가 67.2%로 연구 대상자의 학력 수준이 높았으며, 월수입은 것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대상자의 자기효능감은 평균 56.08점으로 나타나, 관상동맥 우회술을 실시하는 대상자에게 전화상담을 통해 자기효능감을 비교 연구한 Jun[16]의 연구(55.0점)보다 높게 나타났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주요 변수의 차이는 연령, 교육수준, 월수입에 따라 심뇌혈관질환에 대한 지식에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고, 교육수준, 월수입에서 예방에 대한 태도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월수입은 심뇌혈관질환에 대한 지식과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확인 되었는데, 이는 지역사회 심뇌혈관 질환 표준화 사망률과 그 요인을 분석한 연구에서 시, 군, 구의 재정자립도가 그 지역의 심뇌혈관질환 사망률과 상관관계가 있다고 나타난 연구결과를 뒷받침할 수 있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21]. 그러나 30, 40대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11] 결과와는 반대되는 결과로 결혼상태, 학력, 월수입 등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 연구들이 있어 비교할 수 있는 다양한 연구가 필요하다.

자기효능감의 차이에서는 여성이 남성보다 자기효능감이 유의하게 높게 나왔다. 남성이 여성에 비해 심뇌혈관질환의 위험률이 높은데, 남성의 자기효능감이 낮게 나타났으므로 중년 남성들이 스스로 심뇌혈관질환 예방 행위를 할 수 있도록 중년 남성을 대상으로 한 자기효능감을 높일 수 있는 심뇌혈관질환 예방 교육이 필요하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보면, 중년기 성인의 심뇌혈관에 대한 지식수준은 증상의 높은 점수를 나타내고,

지식수준이 높을수록 올바른 예방적 태도를 형성함으로써 지역 주민들의 심뇌혈관질환 예방을 위해 적절하고 적극적인 예방 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는 S시의 40-50대 중년기 성인을 대상으로 심뇌혈관질환에 관한 지식, 예방에 대한 태도, 자기효능감의 정도를 확인하고, 이들 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연구대상자들의 심뇌혈관질환에 관한 지식, 예방에 대한 태도, 자기효능감은 높은 편이었으며, 심뇌혈관질환에 대한 지식과 예방에 대한 태도는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일반적 특성에 변수의 차이를 보면 연령, 교육수준, 월수입에서 심뇌혈관질환에 관한 지식의 차이가 있었고, 교육수준과 월수입에서 예방에 대한 태도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또한 성별에 따른 자기효능감의 차이가 있었으며, 여성이 남성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에서 심뇌혈관질환에 대한 지식수준이 높을수록 올바른 태도를 형성할 수 있고, 남성이 여성보다 심뇌혈관질환의 위험성이 높음에 비해 자기효능감이 낮게 나타났으므로 중년 남성을 중심으로 한 심뇌혈관질환 예방 교육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그러나 본 연구는 일 지역의 중년기 성인만을 대상으로 임의표집하여 조사하였으므로 일반화에 어려움이 있어 지역별 중년 성인을 대상으로 한 반복연구를 제안한다. 또한 심뇌혈관질환의 예방에 대한 태도에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적절한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중년기 남성을 대상으로 심뇌혈관질환 예방에 대한 자기효능감을 높일 수 있는 동기강화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을 제안한다.

REFERENCES

- [1] The National Statistical Office, Statistics about the Causes of Death in 2017. 2017.
- [2] CG. Kim, SH. Lee & SG. Cha. (2017). Influencing factors on cardiocerebrovascular disease risk factors in young men: focusing in obesity indices. *Journal of Korean Biological Nursing Science*, 19(1), 1-10.
- [3] American Heart Association(AHA). "Highlights of the 2010 American Heart Association Guidelines for CPR and ECC" <http://www.americanheart.org>. 2010.
- [4] MJ. Oh, HO. Jang, & SH. Kim. (2017). Effects of a Cerebrocardiovascula Disease Prevention Education Program on the Knowledge, Preventive Attitude, and Self-Esteem of Cerebrocardiovascular Disease for the elderly in the elderly welfare center. *Asia-pacific Journal of Multimedia Services Convergent with Art, Humanities, and Sociology*, 7(7), 511-527.
- [5] YO. Lee & YH. Choi. (2013). Factors affecting the preventice behavior of cardiocerebrovascular disease in blue color works. *The Korean Journal of Rehabilitaion Nursing*, 16(1), pp.63-70.
- [6] JK. Joo, JB. Son, JE. Jung, SC. Kim, & K. S. Lee. (2012). Differences of prevalence and components of metabolic syndrome according to menopausal status. *The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Menopause*, 18(3), 155-162.
- [7] Nguyen, H. L., Saczynski, J. S., Gore, J. M., & Goldberg, R. J. (2010). Age and sex differences in duration of prehospital delay in patients with acute myocardial infarction: a systematic review. *Circulation: Cardiovascular Quality and Outcomes*, 3(1), 82-92.
- [8] YJ. Paek & JL. Yoon. (2014). Aspirin in the prevention of cardiovascular disease and cancer. *Journal of the Korean Medical Association*, 57(4), 348-356.
- [9] The Korean Society for Preventive Medicine. (2010). Department of preventive medicine and public health. Seoul: Gyechuk Munhwasa.
- [10] MO. Gu, JS. Yu, IK. Kweon, HW. Kim & EO. Lee. (1994). A review of research on self efficacy theory applied to health related behavior. *The Journal of Nurses Academic Society*, 24(2), 278-302.
- [11] HO. Choi, EJ. Oh, & JH. Kong. (2016). The relationship among cardiocerebrovascular disease knowledge, attitude of health behavior among 30, 40s male works.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16(7), 423-424.

[12] EY. Kim & SY. Hwang. (2011). Incidence risk cardiocerebrovascular disease, preventive knowledge, stage of change and health behavior among male bus drivers. *Korean Journal Adults Nursing*, 23(4), 321-331.

[13] Center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2009). Behavioral Risk Factor Surveillance System Questionnaire.

[14]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10).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5th, Seoul: Government Printing Office.

[15]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08). A health lifestyle for the prevention of cardiocerebrovascular disease; Cerebrovascular disease 9 prevention tips Government & Society coreleased. Seoul.

[16] JS. June. (2005). The effect of telephone consulting program upon the uncertainty of the patients, the level of self-efficiency and self-care ability in CABG surgery pati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Yonsei University, Seoul).

[17] YO. Lee. (2010). Knowledge, attitude and prevention practice activity against cardiocerebrovascular disease. (Unpublished master's thesis.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Daegu).

[18] JH. Cho. (2016). Relationship between Health Concern and Knowledge of Cardio-cerebrovascular Disease and Health Promoting Behaviors of the Elderly ; Focusing on Elderly of Senior Citizen Centers. (Unpublished master's thesis. Kongju National University, Gong Ju).

[19] SY. Park. (2015). The study on knowledge, attitude, prevention action of the cardiocerebrovascular disease: Focusing on the construction workers in Daegu Area. (Unpublished master's thesis. Yeunam University. Daegu).

[20] HM. Kim & Y. H. Choi. (2010). Factors Affecting the Preparation for Later Life according to Age in Production Workers. *Korean Academic Society of Occupational Health Nursing*, 19(2), 117-127.

[21] EO. Park. (2013). Cardiovascular Disease-Specific Standardized Mortality and the Related Factor in South Korea. *Korean Association of Health and Medical Sociology*. 34, 257-271.

[22] MJ. Kim. (2018). The effect of empathy ability of nursing college students on attitude toward mental illness. *Journal of Industrial Convergence*, 16(3), 9-16.

박연희(Yeonhee Park)

[정회원]



- 2006년 2월 : 을지외과대학교 간호학과(간호학사)
- 2012년 2월 : 을지대학교 간호학과(간호학석사)
- 2017년 2월 : 을지대학교 간호학과(간호학박사)
- 2017년 3월 ~ 현재 : 대전과학기술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 관심분야 : 노인, 심뇌혈관질환, 간호교육
- E-Mail : yhpark@dst.ac.kr

장영미(YoungMi Jang)

[정회원]



- 2002년 2월 : 건양대학교 간호학과(간호학사)
- 2009년 2월 : 건양대학교 간호학과(간호학석사)
- 2016년 2월 : 충남대학교 간호학과(간호학박사)
- 2017년 3월 ~ 현재 : 대전과학기술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 관심분야 : 간호관리, 만성질환
- E-Mail : jym79@dst.ac.kr